

아시아 민주주의의 심화

마크 탐타이

종교와 문화 연구소 / 태국, 치앙마이, 궤압 대학

춤이 잘 취지지 않을 때는 폴룩과 드림을 탓하라

- 태국의 속담 -

민주화의 춤은 아시아에서 어떠한가? 만약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민주화춤의 실패를 탓해야 할 것인가? 앞에 소개한 태국의 옛 속담의 숨겨진 의미는, 춤꾼이 춤을 추면서 스텝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그 실수의 원인을 다른 어딘가에서 찾고,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상황을 바꾸는 것에 실패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춤꾼이 익숙한 리듬에 따라서 춤을 출 수 없다”는 것을 뜻할 수 있고, 그 때 문제는 아마도 폴룩과 드림에 있을 수도 있다. 아마도 폴룩과 드림에 의해서 연주되는 리듬이 너무 빨라서 춤꾼의 성향과 맞지 않을 수 있다. 또는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춤꾼이 맞춰야 될 노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순히 의미할 수도 있다.

이상의 유추가 시민들 그리고 국가의 사회적·정치적 제도들이 춤꾼들로 참여하는 민주화 춤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나는 이 속담이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한다고 생각한다: 조화스럽게 보이지 않거나, 그 진전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게 보여지는 민주화과정에서 그 개선책을 찾으려는 노력 속에서, 우리가 서구 민주주의 활동이라는 폴룩과 드림에서만 그 개선책을 찾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적당한 출발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어떤 발동작을 우리가 사용해야 하나?”, “무슨

음악?” 또는 심지어 “왜 우리는 춤을 추는가?”를 묻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민주화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기로부터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 민주화가 잘 진행되지 않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 또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적당한 단계를 찾는 것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탐색은 이 글에서 전개될 세부적인 분석의 힘든 작업을 위한 뼈대를 제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어야 한다. 세부적인 분석은 민주화과정에 대한 본질의 문제들에 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데, 이러한 문제들에는 각 국가에서 민주화 과정의 개선과 관련하여 앞다퉀 제기되는 제안들이 포함될 것이다. 내가 이 글에서 말하는 제안과 아이디어를 위해서 사용될 프레임워크는 민주화는 가장 근본적인 종류의, 사회와 개인의 변환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250년 전 서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지금 확실히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다. 성공적인 경우에 민주화는 우리가 어떻게 일부 상황에서 더 자유롭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덜 자유로워지는가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화가 과거와 비교해서 여전히 비슷한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현실을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은 그 나라의 민주화의 성과를 잃는 것이다. (To the extent that democratization results in social-political, as well as psychological, realities still similar to what existed previously in a country, that country has lost out on the fruits of democratization.)

아시아의 많은 나라는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의 첫 번째 단계를 마쳤다. 그 첫 단계라 함은 자신들의 지도자와 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어떻게 더 나아갈 것인가?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시아의 민주주의적 발전은 18세기 시작되었던 서구 민주주의 발전기 때와는 상이한 문화조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면서 출발해야 한다. 둘째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장애가 될 수도 있는 여타의 현존하는 민주주의체제들로 이루어진 세계적 환경속에서 아시아의 민주발전이 일어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춤을 추고 있는 동안 우리는 춤을 배우고 있다. 우리는 그들 음악에 맞추어서, 그들의 스텝을 따라서 춤을 배워야 하는가? 이러한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더 심화된 두 번째 국면으로의 여행을 시작하는 것을 도울 약간의 스텝을 고민하기 위하여 지금 움직여야 한다. 이 목적을 향하여, 나는 아시아의 민주화를 심화시키기 위한 3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1. 우리는 각각의 인간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어깨를 으쓱해하면서 “그들은 단지 추방되어질 사람들이야”라고 말하는 한, 이주노동자들을 살해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소식에 더 이상 대응할 수 없다. 동시에, 사회 최상위층의 행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지 머리를 굽신거리면서 “그들은 확

실히 옳아.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러한 지위를 획득할 수 없었을 거야”라고 믿는 한, 그들의 행위에 대응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만약 이러한 상황이 변화되지 않은 채 유지된다면, 그 때 심리적으로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현실적인 참여의지도 만들어내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서구에서의 민주화의 초기에 사회의 밑바닥에 속하는 특정 그룹(농민, 토착민, 노예 등)에게서 이와 비슷한 정서가 존재했었다고 할 지라도, 사회적인 계층의 상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고유한 존재가치’와 관련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알렉산더 포프가 1733년에 쓴 시 “사람에 대한 에세이”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시구는 적절히 그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다.

명예와 수치는 조건없이 생겨나니;
스스로 성실하면 모든 것이 명예인 것.
행운이란 약간의 차이만을 가져올뿐,
어떤이는 누더기를 입고 뽀내고, 어떤이는 멋진옷을 입고 안절부절 못하고;
구두장은 앞치마를 두르고, 목사는 가운을 입고,
신부는 망토를 걸치고, 왕은 왕관을 쓴다.
왕관과 성직자의 모자보다 더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뭐요?(그대는 소리친다)
내 말하노니, 그것은 현자와 바보의 차이요.
그대 알게 될 것이요, 왕이 수도승처럼 행동한다면,
구두장이처럼, 그러면 목사는 술에 취할 것이라는 것을,
가치가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 없으면 평범한 사람이 되는 법;
나머지는 단지 가축이나, 모직이나의 차이일 뿐.

아시아의 각 나라에서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별 문화 안으로부터 평등성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 고유한 문화의 규범을 활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모든 인간을 생로병사의 순환 속의 고통을 받는 동지로서 보는 것이다. 또는 다른 비슷한 규범 속에서 찾아야 한다.

2. 우리는 우리의 민주화를 위해서 서로 지원해야 할 방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새롭고 취약한 민주주의체제를 가졌거나 아니면 완전히 전제주의체제로 이루어진 나라들이 모여 만들어진 한 지역 조직의 예를 들어보자. 조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적 결함이 각각의 회원국가에서 존재하는 것보다 더 적은 흥미롭고 상이한 상황이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의 예로 아세안(ASEAN)을 보자. 우리는 회원국인 10개국의 정부 관료들이 공식적, 비공식적 모두에서 서로 대응하고, 그들의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본다. 그 방법들은 그들 개별국가에서 발산하는 것보다 더 민주주의적인 분위기를 유지

한다. 이것은 문화, 역사적인 요소들이 대다수 회원국들의 사회적인 위계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사회적인 장에서 더욱 그러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유산은 바로 그들의 내부적 민주화 시도들에 거대한 장애의 하나로서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나라들에서 규범적 문제들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공적인 영향력이 있는 정책들과 관련하여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둘 모두 민주적인 공동체의 핵심이 되는 것들이다)을 촉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이들 사회 대부분에서 argumentum ad vericundium(권위에 의한 논증)이 가장 선호하는 추론양식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조직수준에서 의견을 따를 수 있고, 누구나 인정하는 'pu yai'(존경받는 사람들)이 없다. ASEAN이나 비슷한 유형의 여타의 조직들이 그들의 다양한 태도와 관계 때문에(종종 정당화될 수 있는) 일부 분석가들에 의해서 '하찮은 것' 또는 '패거리'로 여겨지는 한편, 민주주의를 위한 학습장으로서 그 조직들의 잠재력은 간과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도자들은, 오래된 민주국가들과 관계하면서 경험하는 민주주의의 문제에 있어서 열등감이란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 동시에 이 공간에서 그들은 자신들 각각의 사회에서 지켜야 할 사회적인 제한으로부터도 자유롭다. 대부분의 토론은 평등한 환경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역전된 방식으로, '풀뿌리'로부터 위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과 비슷한 상황을 갖게 된다. 적어도 현재에서는, 확실히 유럽연합(EU)은 이러한 경우에서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데에는 좋은 견본이 될 수 없다. 이후 발전단계에 있어서 적합한 모델이 될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민주적인 결함을 치유하는 다른 방법을 가진 새로운 모델이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모든 것에 비추어 현재의 과제는 현재의 상황에서 불충분한 것을 치유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좋은 예는 책임성의 문제이다. 어떻게 이런 조직은 그들 회원에 책임을 지는가? 또는 회원국은 상호 책임을 지는가? ASEAN의 무간섭 협약(a la ASEAN's 'non-interference pact')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의 사업에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조직들과 관련해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면 거의 웃을 일이다. 그러나, 종종 'ASEAN 방식'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항상 오해가 있었다. 문제는 간섭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간섭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특별한 문화적 배경에 조심스럽게 토대를 두고 이루어진다면, 그 개입은 납득할만하고 효과적인 개입방식이 된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국내적으로 대량 인권침해가 일어난 국가를 어떻게 다루는가의 문제에 대한 응답이 될 것이다: “전혀 없는 것으로부터(from without) 인권을 강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이것은 다른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주권의 침해이다. 둘째로는, 힘없고 가난한 나라와의 관계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나라는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이다. 그런데 이 국가들은 식민지주의와 서구열강들로부터의 점령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국민들) 그들 정부가 한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해도 그들은 종종 외부압력과 같은 종류에 대해서 분개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서로 동등하게(민주주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긴 여정이라는 점에서 아직

까지는) 약한 국가들인 한, 그리고 어느 정도 공유되어지는 맥락, 예를 들어 ASEAN의 경우 칼라야나미트르(불교에서 말하는 우정)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한,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지 않고 인권침해에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에서 강한 나라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는 인권침해를 철폐하는 특정한 문제에서, 그리고 시민의 복지를 돌보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진보를 이루어나가는 등의 일반적인 문제에서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 올바른 환경이 주어지고 만약 한 나라가 공굴리기를 시작한다면,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는 그러한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종류의 조직들은 일종의 자기 스스로 감독하는 ‘민주주의 패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조직의 수준에서 진행되는 모든 이러한 ‘밑을 상승시키는 것으로부터’(from the ground up) 라는 민주주의의 실험은 확실하게 지도자들의 변화된 태도에 의해서 회원국의 국민국가 수준에서의 민주적인 제도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따라서 이러한 제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일종의 아주 소량의 물이 떨어지는 효과이다. 소량의 물이 떨어지는 과정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은 평형적인 주창활동에 의해서 보충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의 민주적인 결함에 관한 토론에서 국민국가의 범위를 넘어서 확장되는 민주적인 공동체의 형성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이 종종 재확인된다. 아주 비슷한 마음을 가진 국가의 작은 그룹에서조차 매우 어렵다. 이것의 한 예는 법은 준수하나 가족과 친구들의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복지는 신경 쓰지 않는 시민을 가진 나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그러한 경우에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흥미로운 질문은 “민주주의에서 공동체를 만들기 또는 공동체에서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쉬운가?”이다. 만약 후자가 그 경우라면, 그리고 물이 떨어지는 효과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가 어느정도 고단한 작업을 통해서 발전되어진다면 그러한 조직은 분명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우리는 우리 나라에게 더 적합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를 테면 자유민주주의와 그 기초가 된 기등인, ‘정교분리’와 같은, 여타의 지역에서 발전했던 민주주의의 형식들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우리 생활에 있어서는 종교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정치생활에 있어서의 종교에 대한 역할을 허용하는 형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국, 우리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종교의 자리를 대신해야 하는 어떠한 “성스러운 자유의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종교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중간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의 이러한 새로운 형태는 마음을 갖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의 정당

성을 쉽게 인정하게 만들 것이다. 민주주의는 더 이상 시대의 유행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또는 단순히 전지구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보아서도 안된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적당한 형태를 발전시키는데 성공한다면 그때 나는 우리가 민주적인 춤을 자연스럽게, 우아하게, 주저없이 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 : 만약 우리가 이러한 두 번째 민주화 국면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실종과 납치가 오로지 국제적인 관심 때문에만 하나의 문제로서 보여지는 상태를 계속 담보할 것이고, 공청회 같은 제도들은 단지 민주주의적인 ‘립서비스 쇼’로서 지속될 것이다.

Deepening Asian Democracy

Mark Tamthai

Institute for the Study of Religion and Culture

Payap University, Chiang Mai, Thailand

When the dance is not going well,
blame the flute and the drum.
- Old Thai saying-

How is the dance of democratization going in Asia? If there are problems, where shall we place the blame for this failure of the democratization dance? The idea behind the above saying from Thailand is that when dancers are performing, and the steps are not as smooth as one hopes, there is a tendency for the dancers to immediately look elsewhere for the cause of the failure of the dance, and in so doing, fail to rectify the situation. Perhaps 'not going well' could mean 'not being able to dance with the rhythm the dancers are used to' and then maybe the problem does lie with the flute and the drum. Perhaps the rhythm given by the flute and the drum is too fast and not to the dancers inclination. Or, 'not going well' could also simply mean not liking the song one is dancing to.

How does the above analogy work in the case of the democratization dance, where the citizens and the social and political institutions of a country form the group of dancers? I think it suggests that in trying to find remedies to a democratization process which at times is seen to be 'out-of-step' or progressing at too fast or too slow a pace, we need to

look not only at the flute and drums of democratic activity in the West. The proper starting point is to ask questions like, "What steps should we use?", "What music?", or even "Why are we dancing?", which is to talk about the aims of democratization. From here we can get a better understanding as to exactly in what sense democratization is not going well and proceed on to finding the proper steps to take to remedy the situation. This search will have to answer some fundamental questions in order to provide a framework for the hard work of detailed analysis that is to follow. Detailed analysis that is needed to answer questions of substance regarding the democratization process, which quite likely will involve competing proposals regarding reform of this process in each individual country. The framework I will use for my subsequent suggestions and ideas in this paper is that democratization is a process of transformation, both social and individual, of the most fundamental kind. This was so in the West 250 years ago, and it must be so now in Asia. Democratization, if successful, should help us learn how to be more free in some situations, and perhaps less free in others. To the extent that democratization results in social-political, as well as psychological, realities still similar to what existed previously in a country, that country has lost out on the fruits of democratization.

Many countries in Asia have completed the first phase of the journey towards democracy, which consists of the election of their leaders and representatives. But how do we move on? In thinking about ways to promote and deepen democracy in Asia we must begin by being mindful that democratic development in Asia is taking place in the midst of cultural conditions different from that existing in the West when their democratic development began in the 18th century. Secondly, it is taking place in a surrounding global environment of other existing democracies, which can be a help, but also a hindrance. We are learning this dance while others are dancing around us. Should we learn to dance to their music? With their dance steps? Keeping these things in mind, we can now turn to considering some steps to take that would help us begin the second deepening phase of our journey. Towards this end I would like to propose three tasks for the deepening of democracy in Asia:

1. We need to change with respect to how we look upon each human being.

We can no longer react to reports of killing migrant workers with impunity by shrugging our shoulders and saying, "They're just deportees". At the same time, we cannot react to all actions of those at the highest end of society by just bowing our head and believing they must be in the right or they would not have achieved such status.

Because if this situation remains unchanged, then, psychologically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create any real sense of participation by the people. Though similar sentiments about certain groups at the bottom of society existed in the West at the beginning of democratization (e.g. peasants, indigenous peoples, slaves) there seems to be a difference in regards to the 'intrinsic worth' of those at the top of the social hierarchy. As an illustration consider the following lines from Alexander Pope's poem "AN ESSAY ON MAN" written in 1733.

Honour and shame from no Condition rise;
Act well your part, there all the honour lies.
Fortune in Men has some small difference made,
One flaunts in rags, on flutters in brocade;
The cobbler aproned, and the parson gowned,
The friar hooded, and the monarch crowned.
"What differ more" (you cry) "than crown and cowl?"
I'll tell you friend! A wise man and a Fool.
You'll find, if once the monarch acts the monk,
Or, cobbler-like, the parson will be drunk,
Worth makes the man, and want of it, the fellow;
The rest is but leather or prunella.

One way to achieve this change in each country in Asia is to build up this sense of equality from within individual cultures, utilizing intrinsic cultural norms, for example, seeing all human beings as 'fellow sufferers in the cycle of birth, aging, sickness and death', or some other similar norms.

2. We need to develop ways to assist each other in our democratization.

Consider the example of regional organizations which are made up of member countries all of which are new and fragile democracies or else completely authoritarian. This gives rise to the interesting and different situation where the democratic deficit at the organization level is actually less than that which exists at the level of the member countries. Using the example of ASEAN as an organization of this type, we can see that the ways that government officials of these ten countries treat each other and conduct their business, both at the formal and informal level, are much more in keeping with a

democratic spirit than what transpires in their individual countries. This holds especially in the social arena where cultural and historical factors have left a legacy of social hierarchy in most member countries which has proven to be one of the greatest obstacles to their internal democratization attempts. An example here is the extreme difficulty of promoting in these countries thinking on one's own about normative matters and participating in debates concerning policies which have public impact, both of which are essential in democratic communities. This is not surprising given that in most of these societies *argumentum ad vericundium* is the preferred mode of reasoning. At the organization level though, there are no shared 'pu yai' (revered people) to defer one's opinion to. Though ASEAN, and perhaps other such organizations, have often been considered by some analysts to be 'jokes' or 'gangs' in their various dealings (sometimes justifiably), their potential as learning grounds for democracy has been overlooked. In these settings the leaders are not subject to a feeling of inferiority in matters of democracy which they would experience in dealing with older democratic countries, at the same time they are free of the social restrictions at the local level which they have to abide by in their respective societies. Most discussions take place in a setting of equality. So we have here a situation possibly similar to that of developing democracy from the 'grass roots' up, in an upside-down sort of way. The EU is definitely not going to be a model for the deepening of democracy in these cases, at least not at the present. Whether it could be a model at the later stages of development is not clear. More likely a new model with a different way of addressing the democratic deficit will develop. The task at the present though is to find ways to address the deficit in the current situation in light of all the above.

The best example to start with is the question of accountability. How are these organizations accountable to their members, or how are the member states accountable to each other? It almost seems laughable to raise this question in the context of organizations which are famous for not interfering in each other's business, a la ASEAN's 'non-interference pact'. But there has always been a misunderstanding of this stance which is often referred to as 'the ASEAN way'. The question is not one of interfering or not, but of the manner of interfering. There are ways of interfering which are both acceptable and effective if based carefully on the particular cultural settings. A standard understanding of this matter would reply as follows to the question of how to deal with states which are involved with massive human rights abuses internally: "It's extremely difficult I think to impose human rights from without. For one thing it's a direct challenge to the sovereignty of other states, for another it's only the strong states and the

rich states that can do this in relation to weaker states and poorer states, and these states have a memory of colonialism and domination by western powers. Even if they are opposed to what their governments are doing, they are often resentful of this kind of external pressure." But the truth of the matter is that states can influence each other on matters of human rights abuses without it being seen as a challenge to sovereignty as long as they are equally weak states (weak in the sense of still being a long way from achieving the goals of democracy), and as long as it is done in some shared context, an example being kalayanamitr (the buddhist dhamma of friendship) in the case of ASEAN. Fellow weak states (relative to the much stronger states in the world) can compete equally in specific matters like doing away with human rights abuses, and in general matters like looking after the well-being of their citizens and making progress in developing democracy. The importance of 'face' guarantees that such competition will take place, given the right setting and if one country starts the ball rolling. These kind of organizations can be a sort of self-monitoring 'democracy panel'.

All this 'from the ground up' experimentation with democracy undertaken at the level of these types of organizations will certainly have some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democratic institutions at the nation-state level of the member countries by changing attitudes of leaders, thus providing space for these institutions to grow. What we would have then is a kind of trickle-down effect. The downside is that all "trickle-down" processes are slow, so this needs to be compensated for by parallel advocacy activities. In debates on Europe's democratic deficit it is often reiterated that the creation of a democratic community that extends beyond the confines of a nation-state is a very difficult process even among a small group of like-minded countries. One example of this is that there can be countries whose citizens are law-abiding but who do not care about the welfare of others outside of family and friends. Do we really have 'community' in such a case? An interesting question then is, "Which is easier to create, community from democracy, or democracy from community?" If the latter is the case, and trickle-down democracy is developed by doing some hard work, then such organizations can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3. We need some analysis of the forms of democracy developed elsewhere, such as liberal democracy and its foundation pillar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to see if there is a need for a more appropriate form of democracy for our countries.

Perhaps a form which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religion in our lives and allows for a role for religion in political life. After all, for us there is no "holy cause of freedom" to take the place of religion in our social life. We need to find a middle path in regard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state. This new form of democracy would have a heart, and will make it easier for the people to see the justification of democracy. Democracy will no longer be seen merely as the fashion of the day, or merely as something necessary in order to do global business. If we are successful in developing such an appropriate form, then I think we will be able to do the democratic dance naturally, gracefully, and without inhibitions.

Conclusion. If we do not begin this second phase of democratization, then for many countries in Asia disappearances and abductions will remain to be seen as a problem only because of international attention, and institutions like public hearings will continue to be only democratic 'lip-service shows'.